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총회 시작

11월3일(주)부터 11월29일(금)까지

2002년 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년을 결산하는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의 총회가 11월중 시작된다.

에 따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전도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2002년 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총회도 은혜 중에 이루어져 내년에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총회는 오늘(11월3일)부터 11월29일(금)까지 기간 중 각 선교회 및 전도회의 형편

안식년 장로 재시무 투표

당회는 우리 교회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 안식년을 가진 김태기, 정병무 장로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를 지난 27일 행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또한 부목사 1년간 시무 연장 청원을 노회에 하기위한 신임투표에서 부목사 전원 허락을 받았다.

2003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시작

우리교회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임명받게 되는 신임 서리집사의 교육 및 면담이 금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이미 신임 서리 집사 후보의 연락처로 등기우편으로 개별통보를 한 바 있으며 우편이 반송된 성도는 본인이 속한 교구담당 목사를 통해 서류를 다시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2003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신임 서리 집사 후보들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 및 면담을 1회씩만 받으면 된다.

교육일정	면담일정
장소: 602호	장소: 601, 602, 603
1차: 11월 6일(수) 1부 예배 후	1차: 11월13일(수) 1부 예배 후
2차: 11월 6일(수) 2부 예배 후	2차: 11월13일(수) 2부 예배 후
3차: 11월10일(주) 찬양예배 후	3차: 11월17일(주) 찬양예배 후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 개최

11월5일 9시 청담교회에서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종운 목사)는 11월5일 오전 9시 청담교회에서 정기회를 개최하여 노회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후임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우리교회는 이종운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 오정수, 성준경, 이영기, 왕경래, 하영수, 박두호, 민순구 장로 등 16명을 총대로 파송한다.

핸드벨 콰이어 단원 모집

2부 예배시간에 연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핸드벨 콰이어(지휘: 이미리 집사)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대학, 청년부원들 중 입단을 희망하는 성도는 오늘(3일)과 다음주일(10일) 504호 핸드벨 연습실로 신청을 하기 바라며 소정의 오디션 을 거쳐 선발케 된다.

대신자 명단

송은미 신동준 신동진 신봉철 신상규 신숙하 안광자 양희자 엄선영 엄윤주 엄준환 오금옥 오명숙 오명화 오상현 오선아 오세종 오연식 오영란 오영희 오희교 우인순 우정임 우태순 유경관 유경래 유금식 유명선 유민호 유재은 윤경준 윤봉환 이광용 이기매 이동기 이명숙 이문숙 이복근 이상구 이승희 이영섭 이영실 이영주 이용재 이우정 이원우 이윤진 이정숙 이정윤 이창열 이한용 이현숙 이현우 이형민 이형복 이호복 임길순 임세재 장경순 장말순 (이상 60명) 다음주 계속

22학기 목회자세미나 및 2002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중강

금주로 10주간의 일정 모두 마쳐

우리교회가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간 국내 교계 지도자들의 영적갱신을 위해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 22학기 과정과 성도와 이웃 주민의 신앙성장 및 평생교육과 여가활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열린 프로그램의 2002 하반기 과정이 금주로 모든 학사일정을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된다. 22학기 목회자 세미나는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1교시 이종운 목사의 시편 강해와 2교시 대선후보 3인을 포함한 10명의 강사진의 뜨거운 강의로 강의실이 가득 차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번 학기에는 39명의 4학기 이수자를 배출 김치동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열린 프로그램 역시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지난 학기보다 등록인원이 많이 증가하여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다.

살롬 경로대학은 11월14일(목) 종강한다.

10월 새가족 환영회

10월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갖는다.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 송 강금옥 강민아 권혜순 금민지 금용오 금형철 김미진 김설자 김성균 김세성 김이리 김종욱 김현자 문강규 박선미 박선영 박성희 서민애 성유정 신태봉 안경화 이난희 이두선 아옥자 이용성 이창열 장애순 정희정 조광희 조명대 조미라 최윤나 홍선길 이상 34명

11월 행사표

- 11. 1 (금): 성경암송대회본선
- 11. 3 (주):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11. 4 (월): 목회자 세미나 수료식
- 11. 5 (화):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 11. 6 (수) 신임 서리집사 교육
- 11. 9(토) 피택 집사, 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
- 11.10 (주) 전도위원회
- 11. 13 (수) 서리집사 면담
- 11. 17(주) 추수감사 찬양예배(임마누엘 찬양대) 교구위원회
- 11. 24(주) 추수감사, 성찬식, 교회 11주년 기념 감사예배, 집사, 권사 임직식

사명자 대회 50일 연속기도회

날짜	교구명
11월4일(월)	10교구
11월5일(화)	9교구
11월6일(수)	8교구
11월7일(목)	11교구
11월8일(금)	12교구
11월9일(토)	13교구
11월10일(주일)	주일예배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모습들

(호세아 7장 1 - 16절)



이중윤 목사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찾은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 시키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감출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은밀히 도둑질을 하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1절).

이스라엘의 안과 밖은 완전히 도둑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 앞에 무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눅 13:4).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네 가지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화덕 같은 죄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4절).

화덕은 떡 굽는 가마솥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 화덕과 같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고멜이 가정을 버리고 다시 창녀굴로 돌아가 간음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간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살인과 도적질과 속임과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네 가지 죄가 만연되고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았던 그 죄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은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3절).

왕권을 이어야 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왕하 15:10). 그리고 살롬은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왕하 15:14). 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왕하 15:25).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죽이는 일이 계속 되어 2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6절).

이스라엘의 죄는 불꽃같아서 잘못된 정열에 의해서 사회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음하는 죄는 정치적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반드시 망할 것입

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물질을 섬기고, 학교마다 단군상을 세운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볼지, 혹은 어두움을 볼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8절).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와 야합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병은 영어로 flat cake, 납작한 케이크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 쪽만 익고 한 쪽은 익지 않은 것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용지물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9절).

이방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조차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지한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속이 익지 않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합니다.

3. 어리석은 비둘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11절).

죄를 짓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차게 되면 결단을 잘못 내려서

동쪽으로 가야 할 길을 서쪽으로 가듯 죄를 골라가면서 가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계속해서 악을 향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연약하면서도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비둘기는 잘 속고 무감각해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앗수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무가 되는 그 길로 가지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과 앗수르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찾은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4. 속이는 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엮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16절).

'속이는 활'이란 과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속이는 활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신자이나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는 속이는 활입니다.

과녁을 향해 가던 화살이 빗나가거나 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히브리어로 '하말티야', 죄라고 합니다. 속이는 활은 꺾어버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유기업탐방

환경 보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동권 집사(2교구)

이동권 집사가 경영하는 (주)envio의 사무실에는 온통 그의 연구 자료인 광촉매, 광섬유에 대한 책자와 연구 재료들로 꽉 차있다.

(주)envio는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보존해야 한다는 그의 절실한 마음에서 창업되었다. 그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는 중학생이 되어야야 처음 기차를 타보았을 만큼 깊은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동권 집사는 경상북도 의산에서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줄곧 그 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비로소 도시로 나왔다. 그리고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기계과에 입학했을 때 고향에서는 경사가 낮았다.

이동권 집사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자연 사랑이 환경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표출 된 것은 그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입대했고 군인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차출되어 그로부터 2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진해와 창원에서 해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되었으나 어찌 보면 그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본의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는 여기서 함포를 만들었는데 유해 폐기물을 많이 방출해야만 하는 무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폐기물들을 무해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동권 집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말은 프로젝트마다 모두 성공을 거두어 국가에 많은 기여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연사랑과 환경보존을 꿈꾸었고, 환경의 가장 기본인 물과 공기를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주)envio를 창업하기에 이르렀다.

지난여름, 그에게는 몹시 힘든 시간이었다.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자 만만치 않은 연구비가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envio는 한 개도 말기 어렵다는 정부정책과 제를 5개나 맡아 국가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가 열매를 맺어 올 12월과 내년 1월에 출시되는 고효율소형공기청정기와 정수기가 가시화 되자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무엇보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주)envio의 창업자인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동권 집사는 대학 시절 우수한 기독 청년들에게 무료

로 숙식을 제공하는 승덕학사에 유학 당시 그 곳 승덕교회에서 박경자 집사를 만났고 77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준영, 인영 형제를 두었다. 그는 지금도 그때 박 집사가 찬양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이동권 집사의 연구원 시절 박 집사는 해군교회에서 지휘를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보면 편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믿음이 위축된 때가 아니었나 싶다.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뒤로하고 서울로 왔을 때 섬길 교회를 찾다가 서울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원칙주의를 고수하고, 99%가 아닌 100%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종운 목사님을 통하여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 그는 지금 장년 1부 성경교사와 베들레헴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 특히 30분 남짓의 성경공부시간을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하며 자신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 몇 주전 '환경보존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때는 학생들과 더불어 유감없는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장년부 교사는 그에게 특별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을 준다.

며칠 후면 수능시험을 치르는 둘째 인영, 공부하느라 힘든 가운데도 믿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로 교회를 섬기며 이제 곧 있을 추수감사절 정기 연주를 준비하며 애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는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동권 집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우리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저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강건한 믿음이 부럽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강건한 믿음을 사모하는 그가 정녕 믿음의 장부 아닌가!
정리: 허숙(편집부)



입시생을 위한 기도

이태훈 전도사(고등부 지도)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스리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장 1-2절)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나라 많은 학생들이 수능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동안 같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원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위로 해 주시고 이 시험이 인생의 커다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님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의 이 일을 맞이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를 평안히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도 농부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의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반대로 나쁜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낙담하는 인격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진실 되게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하나되어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를 본받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이제 시험을 치른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광환 집사(고등부부장)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 때가 되니 추위가 몰려오고 있다. 이때를 위해 3년간이나 십 수년을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던가? 웬지 시험이라면 몸이 먼저 굳고 초조해 지는 지-- 특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라고 하니 더욱 떨리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된 반응인가보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군세계 붙들어 앞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우리 수험생들은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까지 준비한 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리라. 공중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우리의 앞길과 인생 또한 하나님 뜻에 의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실 그릇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독학생들이 되자.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떠올리자. 마음속의 불안감은 이 기도의 끈 안에서 날려버리자. 이것은 단지 미래를 이끌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발자국, 작은 통과례일 뿐이다. 오히려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빛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 감사하자.

수능시험 특별 기도회
-11월 6일 802호-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 당일인 6일 교회 802호실에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기도회 참여를 권장한다.

2002년 한해를 돌아 보며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노상훈 (청년부 회장)

일 년 간의 청년부 회장 임기를 마치며,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놀라울 뿐입니다. 청년부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상은 지도 목사님께서 오셨고, 주일 집회와 함께 토요일 집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새가족 친구들이 등록하였고, 한편 많은 수의 청년들이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청년부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를 쓰던 1년 전이 떠오릅니다. 교회의 여러 어른들께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청년부임을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청년부가 과연 흐른 시간만큼 성장했는지, 교육의 효과로 삶의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꿈꿔온 부흥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앞장서서 일을 해 온 입장에서, 그리 큰 열매도 그렇게 큰 업적도 그리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부 회원들의 삶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사회에 적응하기가,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찮은 일이겠지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후원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 우리 청년부의 2002년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부, 다 커 보이고, 어른 같고, 기둥들 같지만,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멀고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잘 가서, 믿음 위에 굳게 선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많은 부분 성도님들의 기도후원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 수첩의 맨 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찬양예배 시에는, 성도님들의 기도제목 1순위가 되는 청년부의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청년부의 모습대로 기도로 저희들의 성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 년 동안의 청년부 사역을 마감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함을 배웠기에 이렇게 기도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용호 (대약부 회장)

회장으로 당선되어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청 대상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대상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①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②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③교회를 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활동과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지난 교회에서 시험이나 상처를 받고 옮긴 후에 아직 믿음의 정착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당부하십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가서 세상의 구원주이신 예수님 자랑, 세계적인 교회, 준비된 교회, 세계적인 목사님을 마음껏 자랑하여 하나님의 큰 선물인 우리 예배당을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지옥 가기 어렵고, 천국 가기 쉬운 지역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새로운 회장을 뽑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느껴집니다.

일년간을 돌아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쉬움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입니다. 일년 동안 정말 대학부를 충분히 섬겼던가. 진정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작은 부분들을 민감하게 바라보며 모자란 것들을 보수하는 자로 서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처음에 회장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해볼 때는 결코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가셨던 모습과 같이 내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 지난 일년이 결코 헛된 회장으로서는 기간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실패다, 연약하다 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섬김의 시간들은 오히려 저를 경험시키고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진 기회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일년의 회장으로서는 시간들을 마무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것들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생각들, 그리고 순간마다 보여졌던 연약함이 이제는 제 가운데서 더 크게 영글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더욱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로 빛어지기 위한 시간들이 깊어질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후에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7일(목)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체플에서 설교한다.
- 기증: 이경자 성도(14교구) 꽃 화분 8개 기증
- 이석빈 집사(1교구) 10/26 제4회 장영실의 날 기념 전국대회-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 지교인·이은경 성도 강남구 대치1동 선경 아파트 5-305
- 홍창배·권희순 집사 성동구 행당2동 한진 apt 121-863
- 유중관·진선자 집사 전화번호 변경 3013-7735

- ☞ 금주의 식사제공: 김영우·김양숙 집사 가정 (어머님의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 목회자 세미나떡 제공: 김세재 장로·이윤진 권사 가정
- ☞ 목회자 세미나간식제공: 전광영 집사·김인숙 권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8시40분
- 인터넷방송(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태신자를 부르신다

-태신자와 함께 17일 주일 예배드려-

사명자대회 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해 오던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복음과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11월 17일(주일) 1,2,3부 예배를 태신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했다. 초청 대상자는 현재까지 성도개인과 70인 전도대를 통해 접수된 태신자 전원(약580명)과 초청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다. 대회본부에서는 전 교인이 한 사람 이상 초청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주소가 파악된 사람들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하며, 또한 교인 중 원하는 사람은 초청장을 배부 받아 전달 할 수 있다. 초청당일 참석한 태신자들에게는 귀한 선물과 꽃이 준비되어있다. 이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 오던 육신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태신자초청 주일 우리는 누구부터 초청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차적 초청 대상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연말 연시를 보람차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지역 2연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거리